

제 300호 · 2015년 4월 1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World Bank, 중국 철도 물류 증가 가능성 전망
2. 나이지리아, 도시화 및 중산층 등장은 소매물류 시장 확대의 청신호
3. WWL, 텐진에 자동차 전용물류센터 개장
4. APL 로지스틱스社, 스리랑카에 통합 허브 구축 발표

물류시장동향

1. 머스크사, 아시아태평양 – 노보로시스크간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 개시
2. 어플 사용 운송회사 Uber, 홍콩에 새로운 화물서비스 UberCargo 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World Bank, 중국 철도 물류 증가 가능성 전망

-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철도 물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 보고서의 제목은 "Customer-driven Rail Intermodal Logistics: Unlocking a New Source of Value for China"로 금년 3월에 발표됨
 - 특히 이 보고서는 북미와 같은 산업구조 및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철도 물류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은 지금까지 트럭킹과 해운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철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음
 - 2008~2013년 기간 톤-킬로(ton-kilometers) 기준 중국 도로 화물은 연평균 16.7%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의 거의 2배, 그리고 철도 화물 증가율(약 5.8%)의 거의 3배에 달함
 - 2008년 중국은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이 전체 화물 운송량의 약 22.8%, 도로가 29.8%, 해운이 45.6%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철도 운송량은 17.4%로 크게 감소했으며, 도로가 33.2%, 해운 47.3%로 운송 비중이 크게 변화되었음
- 세계은행 보고서의 집필을 맡은 세계은행 소속 운송전문가 Luis Blancas씨는 북미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중국의 화물 운송시장에 있어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제조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획기적인 물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음
 -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 중국 제조기업들의 다수가 최근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물류에 있어 장거리의 국제 및 국내 물류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 즉 중국의 도로가 점점 혼잡해지고, 장거리 운송에 불리하여 철도가 매우 유리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영 철도운송사인 중국철도공사(China Railway Corporation; CRC)가 특히 철도 운송개혁의 주체적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지금까지 중국은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화물 운송 철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으나,
 -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방향은 북미에서와 같은 철도물류에 대한 투자 강화에 있으므로 이 같은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음
 - 또한 이 보고서는 철도 운송사들이 운임설정, 루트 디자인, 운송시간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내용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철도 운송사들 각각이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자료 : *Americanshipper*, 2015. 3. 20.

김태일 부연구위원 (☎ 051-797-4609, ktizorro@kmi.re.kr)

□ 나이지리아, 도시화 및 중산층 등장은 소매물류 시장 확대의 청신호

- 개발 열기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아프리카 주요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도시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나이지리아의 경우, 최대 도시 라고스를 중심으로 소매물류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
 - PwC는 아프리카의 부동산 전망을 내놓은 최근 보고서 “부동산: 아프리카의 미래 만들기”(Real Estate: Building the future of Africa)를 통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동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도시화 추세, 각국 현황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전망함
 - 현재 아프리카의 굴지의 대도시는 라고스 외에 카이로(이집트), 킌사사(DR 콩고), 다르 에스 살람(탄자니아) 등이며, 이 중 현재 인구 8백만 이상 대도시는 라고스(약 8백만 명), 킌사사(약 1천만 명), 카이로(약 2천만 명으로 추산) 등이 꼽히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물류 시장은 아프리카 역내 무역 및 투자 증가세,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지속 및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매물류 시장 확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모바일 banking, 온라인 기술의 확산 등 금융 및 은행업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소매물류 시장 확대전망의 강력한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함
- 2017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 명을 넘어서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아프리카 인구의 중산층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임
 - 나이로비, 킌사사, 다르 에스 살람 등 아프리카 주요 대도시 인구는 2025년까지 현재 수준의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4년 현재 178.5백만 명이며, GDP 성장률은 2013년 5.4%를 기록
 - 동기간 내 나이지리아 1개국에서만 7천6백만에 이르는 중산층 인구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급격한 도시화는 주택부족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주택 및 도시기반 시설 투자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음
 - * 나이지리아의 신규 주택 수요는 1천7백만 호이며,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만 미화 363십억 달러에 이름
- 나이지리아 라고스, 아부자, 하코트(Harcourt)항 등 주요 도시는 왕성한 팽창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 전체의 소매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 아프리카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2008년 미화 860백만 달러 수준에서 2020년 1.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에서 10개의 쇼핑 몰이 건설되고 있음
 - * 팜 몰(Palm Mall), 이케자 시티몰 등은 2011년 이미 개장됨

- * 나이지리아는 세계무역센터(아부자), Wings project(라고스, 사업비 1억8천2백만 달러 규모) 등 중산층을 겨냥한 대형 사무 및 쇼핑 복합건물 건설을 추진 중임
- 반면 라고스의 소매물류 인프라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수출 주도형 비즈니스 활동에 초점을 맞춘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25개를 승인해 소매물류와 무역 증진의 동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 인구 1천명 당 소매공간 비교시 남아공은 480㎡인데 비해 나이지리아는 1㎡에 불과¹⁾
 - * 나이지리아는 최근 항만 민영화를 통한 항만개발과 연계해 소비재 교역을 위한 보관 창고 시설의 증설, 수출촉진형 산업클러스터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음
 - PwC는 이러한 나이지리아 주요 도시 상황이 물류관련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나이지리아의 사업여건을 잊지 말것을 조언함
 - * 나이지리아는 2015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사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시 평가대상 189개국 중 170위를 차지

자료 : www.pwc.co.za, 2015.3.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1) Super Return Africa Conference. PwC 보고서(Real Estate: Building the future of Africa)에서 재인용.

□ WWL, 텐진에 자동차 전용물류센터 개장

- 글로벌 자동차 운송회사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WWL)는 Tianjin Port Group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텐진에 자동차 전용물류센터를 개장했음
 - 본 물류센터는 텐진 동강 FTZ에서 위치하며 140,000m² 규모의 야적장과 6,000m² 규모의 작업장을 갖춘 대규모 시설임
 - 이번에 개장되는 물류센터는 WWL가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개장하는 자동차전용 물류센터로 각종 부가가치 물류가 가능한 자동차전용 가공 센터(Vehicle Processing Center, VPC)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WWL는 텐진의 신규 센터를 통해 상하이와 광저우에 있는 기존의 VPC를 보완하면서 중국의 주요 자동차 항만에서 고품질의 자동차 수출입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음
 - 특히 향상된 네트워크로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공장에서 딜러에게까지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입 물류 솔루션의 제공이 가능해졌음
 - 현재 텐진에는 두 개의 자동차 전용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항만에서 차량의 선하적이 용이하며, VPC가 보세지역인 동강 FTZ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업무처리시간의 단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 WWL은 VPC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를 수행할 예정임
 - 텐진 VPC에서는 검사, 통관, 검역, 각종 사무처리, 차량 셔틀, 보세 운송 및 보관, 세척, 수리, 차량 인도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또한 향후 필요시 140,000m²에 달하는 전체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며, 6,000m²의 작업장은 각종 공정을 위해 대형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크기의 차량을 입고시킬 수 있고,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한 940m² 크기의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음
 - 천진의 VPC는 2014년 중반 WWL China와 Tianjin Port Group (TPG)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Tianjin Port Wallenius Wilhelmsen Vehicle Logistics Co., Ltd에서 운영 중이며, WWL China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본 조인트벤처는 TPG의 자본과 WWL의 전문지식이 결합한 파트너십의 결과로 탄생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2wgloba.com, 2015.3.19.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 APL 로지스틱스社, 스리랑카에 통합 허브 구축 발표

- APL 로지스틱스사는 스리랑카 투자청과 카투나야크(Katunayake) 수출 가공 지역(EPZ)에 대한 투자 합의를 체결함
 - 상기 투자 합의 체결 이후 APL 로지스틱스사는 스리랑카에 오는 '15년 하반기까지 남아시아 지역을 위한 신규 통합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
 - 이에 더하여 APL 로지스틱스 Lank²⁾는 카투나야크 수출 가공 지구 내의 컨테이너화물집하소(Container Freight Station)와 창고 및 기타 물류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부지를 임대

<카투나야크 수출 가공 지역(EPZ)의 위치>



- 한편, APL 로지스틱스는 통합 허브 구축 계획의 다음 단계로 카투나야크 수출 가공 지역의 기존 설비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상기 계획은 10만 ft2 넓이의 국제 안전 및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보세창고 및 화물역 등의 제공을 포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3.18.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시장동향

□ 머스크사, 아시아태평양 - 노보로시스크간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 개시

- 3월 말부터 머스크사가 아시아에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³⁾으로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를 시작함
 - 이는 흑해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의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머스크사가 이와 같은 투자를 하게된 것임
- 새로운 항로에는 일본의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한국의 부산항, 중국의 상하이항, Ningbo항, 옌텐항,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항이 포함됨
- 이 항로에는 파나막스급, 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의 14척이 매주 5,000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됨

자료 : www.portnews.ru, 2015.3.27.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i@kmi.re.kr)

□ 어플 사용 운송회사 Uber, 홍콩에 새로운 화물서비스 UberCargo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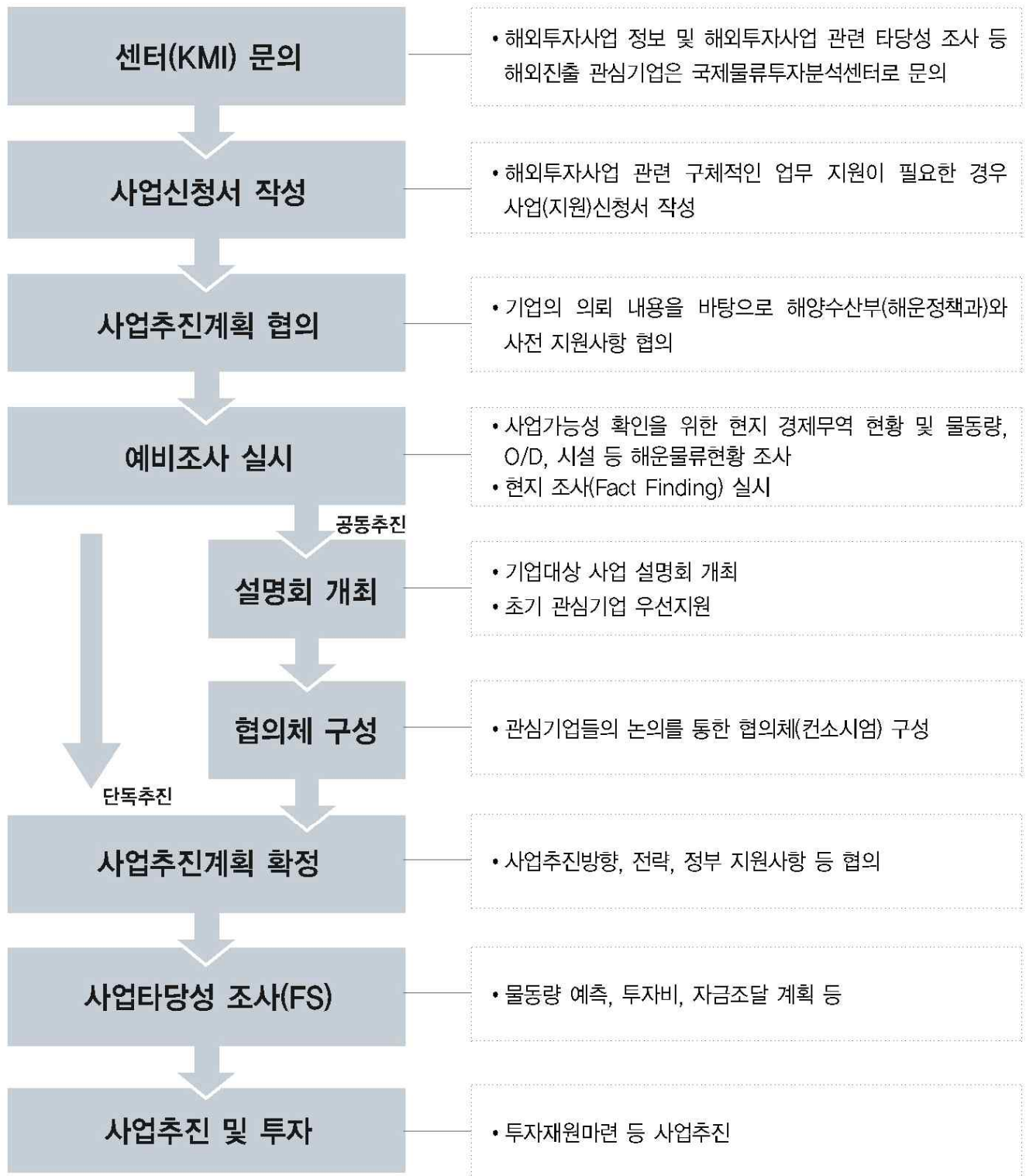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UberCargo는 부피가 큰 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임
 -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고객들이 화물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수령인에게 화물의 위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객이 화물운송시 차량에 동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조함
 - 운임료는 운반을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거리에 따라 측정됨
 - Uber 측에 의하면 UberCargo 서비스는 "기존의 복잡하고 값비싼 운송절차를 없애고 필요한 물류수송을 간편한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운송 서비스"라고 함
 - 미국에 본사를 둔 Uber는 뉴욕과 워싱턴에 각각 작은 물품을 운송해주는 "UberRush"와 생활 용품을 배달해주는 "UberEssentials" 서비스를 출시함
 - UberCargo는 홍콩에 첫 출시된 서비스로, 중국내 유사 "Van-rental" 서비스 회사인 EasyVan, GoGoVan 등에 도전장을 내밀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1.9.

김민경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3) 러시아 남부 크라스토히아스크 지방에 있는 항만으로 흑해 북쪽 캅카스반도에 위치하고 있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